

한국의 30대 <2>

아이들 교육열

성적이 전부는 아니지만... 원칙-현실 사이서 방황

‘과잉 뒷바라지’ 폐단 알지만 “남들도 다하는데...”

대학 홍보실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함창훈(34)씨는 며칠 전 직장으로 걸려온 아내의 전화를 받았다. 영재교육 학원에 다니는 6살 난 딸의 수업평가를 참관했는데 다른 아이보다 발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속이 터진다는 푸념이었다.

함씨는 아내가 잔뜩 부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갔으나 뜻밖에도 아내의 얼굴은 활짝 개어 있었다. 딸이 유치원에서 동

화구연을 하면서는 아주 잘했다는 것이다. 아이의 조그만 행동 하나 하나에 웃다가 울다가 하는 것이다. 함씨의 딸은 유치원·영재교육 학원 말고도 바이얼린학원까지 다니고 있다.

“아빠노릇 힘들어져”

“처음에는 아내에게 ‘우리 때는 그냥 놓아두어도 잘만 컸는데 웬 수선이나’고 야단도 쳤지만, 그냥 놔두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게 된

다는 고집에 결국 지게 되더군요.” 함씨의 이런 고민은 그 자신만이 아니라 이 시대 30대 가장이 공통으로 겪는 것이기도 하다.

30대 가장들은 대부분 어느 세대보다 가정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그전 세대 아버지들이 누렸던 가부장적 권위나 질서가 집안에서 더이상 통하지도 않고 ‘아버지 노릇’ 하기가 점점 힘들어진다고 푸념한다. 그래서 30대들의 부모 구실도 예전과 바뀌어 ‘엄마

엄마’ ‘자상한 아빠’로 변했다. 함씨 역시 딸의 유치원 행사 때면 휴가를 내서라도 꼭 참석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스스로없이 함께 놀아주는 ‘친구 같은 아빠’다.

회사원 김형도(34)씨는 최근 7살 난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의 ‘아버지 참관수업’에 갔다가 옛 세대와는 다른 30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새삼 놀랐다. 평일 오후인데도 전체 30여명 학부모 가운데 한두 사람을 빼고는 거의 참석해 아이들과 게임 등에 몰두하는 분위기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30대 아버지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좋은 아버지 노릇 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줄 알면서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남부럽지 않게” 욕심

그러나 ‘좋은 아버지’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우리 아이만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는 욕심 또한 30대의 보편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전 세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대개 1~2명의 자녀를 둔 30대들에게서 나타

나는 ‘내 아이만큼은’이란 의식은 여성의 전유물만은 아닌 것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3월 30대 기혼 직장남성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가계 지출규모를 줄여야 할 때 자녀의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자는 0.5%에 지나지 않은 것도 이를 잘 반증해준다. 30대 여성들이 나날이 치열해져 가는 교육환경에 대해 느끼는 감도는 거의 본능에 가깝다.

“예전에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것만 해주면 됐지만 지금은 투자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때이므로 금전과 시간을 들여 뒷바라지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시통역사로 일하면서 세살 난 딸을 키우는 주부 김아무개(32)씨는 “30대 여성들이 교육문제로 애를 태우는 것은 치열해지는 경쟁사회에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출판사를 운영하는 윤현정(32·여)씨는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은 일종의 가치혼돈 상태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성적위주·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어느 세대보다 잘 알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얹매이지 않게 키우고 싶어하면서도 막상 자녀들이 제도교육에 편입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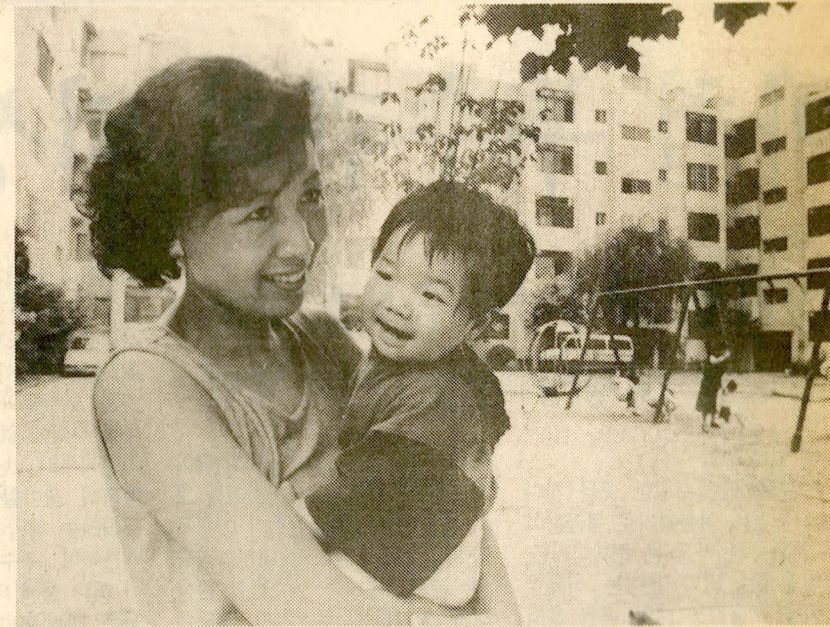
때쯤 되면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상실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이 30대의 ‘일반적 얼굴’이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70~80년대 격동기야 청년기를 보내면서 나름대로 시민 사회 형성의 역사적 경험을 몸으로 체득한 30대들은 이전세대와 다른 무엇을 자신들의 아들과 딸에 물려줄 것인가?

올바른 인간교육 실천도

일부 30대 부부들은 성적만으로 자녀교육의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실천하고 있다.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나원형(44)씨는 “지금 세대가 자기 자식들을 이기적이고 성적에만 매달리는 사람으로 키운다면 앞으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부모자식 관계가 ‘나는 나, 너는 너’로 안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나씨는 “5살 난 딸을 공부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패를 끼치지 않고 공공의식과 시민의식을 갖도록 올바른 인간으로 키우는 데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

김도형 기



70·80년대에 청년기를 보내며 우리 교육의 문제점을 생생히 체득한 30대들이지만 막상 자신들의 자녀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는 경우가 많다. 김선규 기자